

삼성전자, 소외이웃에 김장김치 8000포기 전달

‘김치플러스 김장축제’ 임직원 100여명 참여

삼성전자가 16일 경기도 수원 아동 보육시설 경동원에서 ‘김치플러스 김장축제’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삼성전자 임직원 100여명은 김장김치 8000포기를 담갔다. 800포기는 경동원에, 나머지 7200포기는 전국 취약계층 2000여 세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김치플러스’와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 무선청소기 ‘파워건’ 등 가전제품 23대도 경동원에 선물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삼성전자는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육시설 경동원에서 김치플러스 김장축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원팀’이 명심해야 할 것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한 나라의 예산을 짜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역시 경제 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실장이 바뀌면서 이번처럼 ‘원팀’을 강조한 전례는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경제가 추락하고 경제주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와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꺼번에 바뀐 경우도 드문 사례다.

참모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통령은 흥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에, 직전의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각각 앉혔다. ‘김앤장’으로도 불리던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하지 못한 일을 이들에게 맡긴 것이다.

인사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이들이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흥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언론에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는 소신을 내놨다.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장관급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불협화음을 보인 전임 ‘김앤장’을 의식한 발언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정말 하지 못한 일은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간 소통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이었다.

특히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과의 소통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를 놓고 ‘호평’ 아닌 ‘흑평’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임금을 쥐 소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제주체인 국민과의 소통부재도 물론이다.

‘원팀’이 팀 내에서의 소통보다 이들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원팀’은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이 “경제를 잘 모른다”거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bada@metroseoul.co.kr

KT 가나 보건청과 ‘감염병 확산방지’ 협력

빅데이터 활용해 예방 시스템 구축

KT가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를 가나로 확대했다.

KT는 16일(현지시간) 가나아크라에서 가나 보건청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KT가 국가 보건기관과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에볼라가 발생했던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처음 협력한 것으로 국제

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는 지역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이용해 감염병 확산 초기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에 봉사단을 파견해 IT 기기를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동을 진행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 과학 체험과 미술



KT 윤종진 부사장(오른쪽)이 가나 보건청 관계자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KT

등 교육 봉사 및 IT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12월)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60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72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4년생 길 떠나려는 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쉬어가지.
- 소** 49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이었다. 6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73년생 목마는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85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 호랑이** 50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62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4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8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잊지 말라.
- 토끼** 51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3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75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87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 말** 52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64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온다. 76년생 노란색, 숫자 13이 행운을 준다. 88년생 보석은 마찰 없이 빛날 수 없고 사람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 뱀** 53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기며 살라. 65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7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89년생 언제나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 안에 있다.

- 말** 54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66년생 울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78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위기를 탈출. 90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황재를 가져온다.
- 양** 55년생 비밀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7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7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초화가 깨진다. 91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어지지 않던 실망은 금물.
- 원숭이** 56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68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80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92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하다.
- 닭** 57년생 히로에악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9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81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 본들 무슨 소용. 93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 개** 5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7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개진리이다. 82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9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 돼지** 59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71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83년생 들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9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4		7			
8			5	2	6			1
	3	4		8		5	6	
			9		4			
	1	2		6		8	9	
1			7	4	8			2
			6		1			
		3				6		

				1				
1		5		2		8		6
	2		6	3	4		5	
2								3
8			3	6	1			4
	1		5		2			6
5			7	4	8			1
		9						8
		7	1	9	6	3		

스도쿠 정답								
8	1	9	6	5	2	4	7	3
6	7	1	4	8	9	3	5	2
2	5	8	7	1	6	9	1	4
7	6	8	9	4	2	1	1	1
4	2	1	7	1	6	5	8	9
1	4	6	9	2	5	1	7	8
9	8	2	1	6	7	1	5	4
5	1	7	4	1	8	9	6	2

김상회의 四季

업의 궤적 십간십이지

서양속담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하라’는 게 있다. 당연한 말이다. 한 단계 높은 말씀으로 ‘원손이 한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다. 불가에서는 무주상보시(無住相般若)라 해서 주었다는 마음도 없이 베풀라고 한다. 종교적 차원의 가르침을 떠나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도 바람직한 덕목이 되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자연에 합일하는 우주적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연은 자량함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흘러간다. 그 과정에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유독 대가를 강조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의 원인은 실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간과한다. 자기가 한 일은 업(業)으로 남아 에너지로 순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인정한다. 자기 생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짓는 일들이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 과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나 내생 또는 더 먼 내생에 어떠한 형태로든 과보로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 윤회설의 또 하나 연관된 개념이다. 내가 행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나라는 존재의 흔적이다. 이 세상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말로는 기(氣)라고 해도 맞고 파장이라고 해도 통하는 말이다. 좋은 행동과 좋은 말에서는 좋은 기가 쌓인다. 좋은 행동과 말은 역시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이 바르고 좋으면 바른 행동과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자기 행동과 말을 꾸밀 수는 있고 남을 잠시 속일 수는 있으나 자신의 식(識)은 속일 수가 없다. 거짓된 생각은 스스로에게 사기(邪氣)를 뿜어내니 심신에 독이 된다고 보는 것 또한 인과의 법칙이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본다면 충과 형과 파가 적은 사람들은 무난한 삶을 산다고 본다. 아마 전생의 삶 역시 무리하는 것이 적었으리라. 육계의 삶에 고통받던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 하지만 십간십이지의 글자는 업의 궤적이라 믿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호